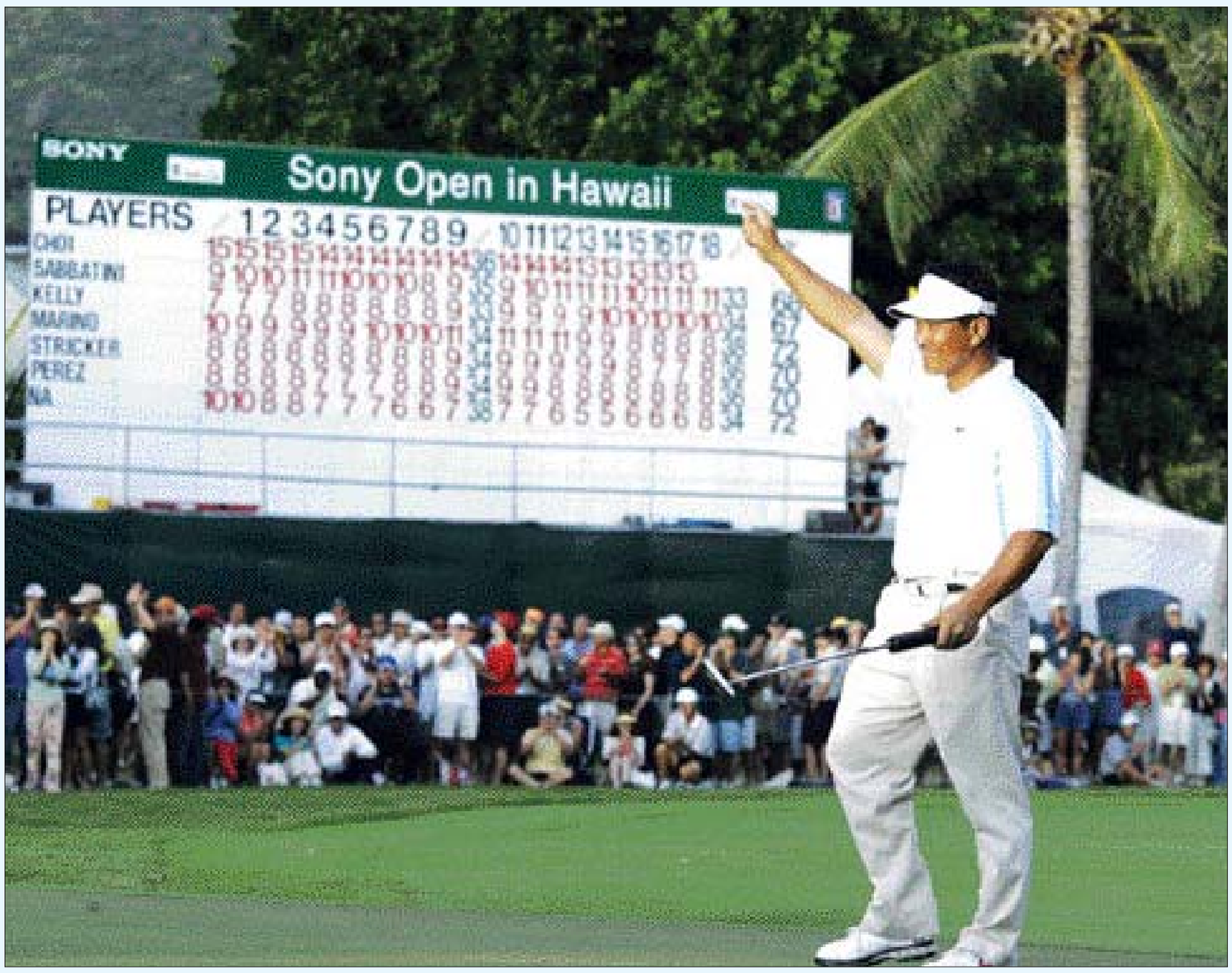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 최경주 PGA 소니오픈 정상 오르기까지



최경주가 14일 호놀룰루에서 벌어진 PGA 투어 소니오픈 최종 라운드 18번 홀 그린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손을 치켜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이어 투 와이어'…PGA 통산 7승

〈wire to wire : 첫 선두 끝까지 유지〉

2위와 3타차…시즌 상금 102만달러

나상욱 8언더 공동 4위, 양용은 20위

'완도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새해 벽두부터 승전고를 울렸다.

최경주는 14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천68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강한 바람이 불어대는 가운데 치러진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2개를 곁들이며 1오버파 71타를 쳐 1~3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불같은 상승세는 꺾였지만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다.

2타를 줄이며 추격을 펼친 토리 사바티니를 3타차 2위로 따돌린 최경주는 우승상금 95만4천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2위(102만1천500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6차례 우승 소식을 늘 5월 이후 시즌 중반이나 시즌 막판에 전해왔던 최경주는 시즌 초반부터 우승을 달성하며 최단 기간 시즌 상금 100만달러 고지를 돌파, 상금랭킹 5위까지 올랐던 작년 성적을 뛰어 넘는 전성기를 예고했다.

최경주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한차례 이상 우승을 차지하며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4년 이상 해마다 우승컵을 가져간 선수는 우즈, 필 미켈슨(미국), 비제이 싱(피지)과 최경주 등 4명 뿐이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내리 선두를 질주한 끝에 정상에 오른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올해 PGA 투어에서 최경주가 처음이며 소니오픈에서는 2001년 브래드 팩슨(미국) 이후 7년만이다.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2오버파 72타를 쳐 공동4위(8언더파 272타)를 차지했다.

올해 PGA 투어 정식 멤버로 합류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공동20위(4언더파 276타)에 올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러냈다.

최경주는 2위에 4타차나 앞선 여유 속에 4라운드를 맞았지만 우승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하와이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경주에 이어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팀 윌킨슨(뉴질랜드)은 8오버파 78타로 망가졌고 10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가운데 타수를 줄인 선수는 두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경주는 초반 위기를 컴퓨터 퍼팅으로 넘겼다. 1~2번홀에서 4m 파퍼트를 집어넣으며 버틴 최경주는 4번홀(파3)에서 티샷 실수에 이어 두번째샷마저 그린에 올리지 못한데다 세번째샷이 2m 가량 홀에서 멀어져 더블보기 위기에 몰렸으나 보기로 막아냈다.

아쉬움도 있었다. 9번홀(파5)에서 1m 짜리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왔고 17번홀(파3)에서는 칩샷이 깃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 아깝게 버디를 놓쳤다.

13번홀(파4)에서는 짧은 파퍼트를 놓쳐 사바티니에 2타차로 쫓기는 위기도 자초했다.

▲와이어 투 와이어(wire to wire) = 골프에서 나흘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우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는 자동차 경주나 경마, 육상 경기 등에서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경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사바티니는 15번홀(파4)에서 벙커샷 실수로 1타를 잃어버려 다시 3타차로 벌어졌다. 사바티니가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챙겼으나 남은 2개홀에서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바티니가 17번홀(파3) 버디 기회를 날린 뒤 18번홀(파5)에서 이글 퍼트가 짧아 끝내 파에 그치면서 사실상 최경주의 우승은 확정됐다.

2타차 리드를 안고 18번홀 공략에 나선 최경주는 가볍게 1m 버디를 성공시켜 우승을 자축했다.

최경주는 "바람이 불어 아주 힘든 경기였다"면서 "인내심이 우승컵을 가져다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우승 원동력

거센 바람,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 초반 위기 넘겨

4타차 선두인데다 2위는 이름조차 생소한 새내기 팀 윌킨슨(뉴질랜드)이었기에 누구도 우승을 의심치 않았던 최종 라운드에서 최경주는 그러나 손쉽게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최경주는 경기가 끝난 뒤 "이렇게 힘든 경기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4라운드 경기는 거센 바람 속에서 치러졌다. 이런 여건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타수를 줄이려는 생각을 버리고 타수를 지키는 게 급선무라는 사실을 최경주는 간파했다.

"바람 때문에 겨냥한 곳으로 볼이 가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오늘은 파세이브 게임이었다"는 최경주는 끈질기게 파를 지켜냈다. 1번홀(파4)과 2번홀(파4)에서 잇따라 4m 파퍼트를 성공시켰다.

2m가 넘는 파퍼트라면 엄청난 중압감 속에 빠른 그린에서 치러지는 PGA 투어 대회에서 성공률이 50% 안팎에 불과하지만 최경주는 초반 위기를 집중력으로 넘긴 것이다.

4번홀(파3)에서 최경주는 자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세번만에 겨우 그린에 볼을 올렸지만 남은 보기 퍼트 거리는 2.5m나 됐다. 더블보기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경주는 보기로 막았다.

13번홀(파4)에서 1m 짜리 파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 들어 처음 3퍼트를 했을 때 최경주는 "정신차리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했을 뿐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3퍼트를 하고 나서 잠에서 퍼뜩 깨어난 기분이었다"는 최경주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뒤처지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웠다.

사바티니가 1타차로 따라 붙을 수 있었던 18번홀 버디 찬스를 3퍼트로 놓쳤다는 정보는 17번홀 티잉그라운드에 있던 최경주에게 전해졌다.

'2타 앞서고 있다. 남은 2개홀에서 보기 하나쯤 나와도 우승할 수 있다'고 캐디 앤디 프로저가 귀띔해주자 최경주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 봅슬레이 아메리카컵 4인승 '銅' 쾌거

장비 빌려 출전 사상 첫 메달 한국판 '쿨러닝'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 강광배, 김정수, 이진희, 조인호 선수(왼쪽부터)가 14일 메달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인승 봅슬레이에서 사상 첫 월드컵 시리즈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한국판 '쿨러닝' 신화를 쓰고 있는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이 이번에는 4인승 경기에서 역대 세계대회 첫 동메달 기적을 연출했다.

한국 썰매종목 개척자 강광배(35·강원도청) 감독이 이끄는 봅슬레이 대표팀은 14일 새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파크시티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8 아메리카컵 2차 대회 4인승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39초23로 캐나다(1분37초22)와 미국(1분38초4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봅슬레이는 국제대회 사상 첫 메달의 기쁨과 함께 4인승 종목에서 이번 시즌 국가별 랭킹 포인트 18위에 올라 전날 2인승에 이어 4인승에서도 2008-2009시즌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월드컵 시리즈 출전권과 내달 세계선수권대회(독일 알텐베르크)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모두 따냈다.

2인승에 이어 이번 4인승 역시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한 강광배 감독은 브레이크맨 이진희(강릉대학교)와 푸셔로 나선 조인호, 김정수(이상 강원도청) 등과 팀을 이뤄 레이스에 나섰다.

그나마 조인호, 김정수는 스켈레턴 대표 선수지만 4인승 인원을 맞추지 못해 푸셔맨(스타트 때 장비를 미는 역할)으로 출전하는 임시처방을 내렸고, 봅슬레이 역시 2인승과 마찬가지로 주최측에 500달러(약 47만원)를 내고 임시로 빌려타야만 했다.

▲영화 '쿨러닝'=눈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해 큰 감동을 자아낸 것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이 때문에 4인승 봅슬레이에는 '솔트레이크 2002'라는 엉뚱한 글자가 찍혀있어 선수들의 헬멧에 부착된 태극기 스티커가 아니면 한국 대표팀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날 캐나다(3팀), 미국(2팀), 멕시코(1팀)와 경쟁한 1차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이날 2차 대회에서 '기적의 질주'를 완성하며 동메달을 차지해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감격을 맛봤다.

한편 아메리카컵을 마친 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치러진 파크시티에서 훈련을 계속한 뒤 내달초 세계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독일로 이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14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파크시티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8 아메리카컵 2차 대회 4인승 경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표 계속되는 이적설 토트넘 풀백 보강 집착

최근 11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9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이영표(31·토트넘)가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일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왼쪽 풀백 보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14일 "후안데 라모스 토트넘 감독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클럽 알메리아의 알바로 네그레도와 마네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네다. 1981년생인 마네는 이영표와 포지션이 겹치는 왼쪽 풀백 자원으로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한 선수다.

이영표는 최근 이적 리스트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온 터라 마네에 대한 라모스 감독의 관심은 달갑잖은 소식이다.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틴 욜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스페인 출신 라모스 감독은 이번달 이적 시장을 통해 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영표를 비롯해 공격수 저메인 데포 등 주축 선수들마저 '살생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전남 연간 입장권 카드 내달 28일까지 판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다음달 28일까지 연간권 카드를 판매한다.

2008시즌 연간 입장권카드는 지난 시즌과 똑같이 전남의 홈경기(16경기)를 모두 볼 수 있는 바코드식 카드로, 선착순 5천 명에 한 해 3만 원에 판매한다.

연간권은 전남 홈페이지(www.dragons.co.kr)나 광양·순천·여수 지역의 32개 GS 25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나 구단 홍보실(061-815-01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만원)	골프장	시세(만원)
광주	3,450	충청도 설악	1,700
남광주	4,400	금호	1,900
충주	8,200	로얄	2,100

상담문의 (062)351-0095